

2016 여름 이화봉사단 국내교육봉사

충청남도 논산시
- 강경지역아동센터



2016. 7

강경지역아동센터 최*주

준비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할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한 명이 빠져 4명이서 준비를 시작했는데, 걱정과는 다르게 준비 회의를 하면서부터는 술술 진행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 스케줄을 정하고, 세부 사항을 정하고, 준비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팀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본인의 역할을 잘 해내주어 준비를 빠르게 마쳤습니다.

첫 프로그램으로 이름표를 만들며 서로의 이름을 알아가고, 아이들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프로그램을 하기에 좀 더 편했습니다. 활동적인 아이들이 많아서 게임할 때 더 재미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만들기도 열심히 해주었는데, 아이들이 빨리하고자 하는 바람에 너무 빨리 끝나 시간이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에 아이들 자기소개와 간단한 게임, 퀴즈내고 맞추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내고, 맞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짧고 간단한 게임을 많이 준비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갔던 게임을 여러 번 돌려썼는데, 할 때마다 아이들은 재미있게 즐겨주어서 고맙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수건돌리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점심이 늦춰져 시간이 부족하거나, 프로그램이 빨리 끝나 시간이 남을 때마다 팀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조정해 진행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근처 초등학교에 가서 야외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시간이 부족해 보물찾기와 물총놀이만 했는데, 더운 날씨에 물총놀이를 해 아이들과 선생님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크레이션때는 아이들과 함께 수건돌리기, 가위바위보, 몸으로 말해요 등 게임을 하고 잠깐의 댄스타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무대에 나와 춤을 춰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이 최신 가요를 좋아해 준비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지난번에 초능력 피구를 재미있게 했는지 자꾸 초능력 피구는 언제 하는지 물어 마지막 날 남은 시간에 초능력 피구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준비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재미있게 즐겨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즐겁게 준비하고, 재미있게 즐긴 프로그램을 아이들도 더 좋아했습니다.

센터에는 사회복지무원 두 분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잘 통제하셨습니다. 4명이서 프로그램을 하기에 벅찬 부분이 많았는데 그 때마다 도와주셔서 좋았습니다. 5시부터 아이들이 귀가하기 시작해 청소를 마치면 6시정도가 되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난 후에는 시간이 남았습니다. 저녁에 다음날 프로그램을 준비하거나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었고, 쉬거나 함께 이야기할 시간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더 가까워질 수 있었고, 내가 알지 못했던 아이들의 이야기도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착하고 예뻐했습니다. 활동적인 아이들도 많았지만 얌전한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활동적인 아이들과는 재미있게 놀아주고, 얌전한 아이들은 많이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팀원 모두 아이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 아이들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상처도 있었기에 조심스러웠지만 먼저 다가와 안기는 아이들에게 많은 사랑을 주고 싶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아이들에 대해 다 알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이 많이 들었는지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아이들은 우리가 언제 가는지 물었습니다. 언제 다시 올 거냐는 물음에 거짓말을 할 수도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을 꼭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강경지역아동센터 남*경

8월 8일부터 8월 12일까지 5일간의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국내 교육 봉사는 아직까지도 여운이 남아있을 만큼 즐겁고 보람찼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강경 중앙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은 저희 봉사단을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밝고 활기찬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정해진 양의 공부를 다 하면 놀 수 있었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암전히 앉아서 할당량을 잘 해 냈습니다. 공부를 끝내면 누구보다 잘 뛰어놀았습니다.

교육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준비한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지 않을까봐 걱정을 했었는데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서 너무 예뻐했습니다. 고학년 아이들은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을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과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엔 아이들이 참여하지 않을 법도 했는데 우려와는 다르게 열심히 하고 과학 원리도 물어보곤 했습니다.

야외 프로그램은 정말 너무 더운 여름날이었는데도 선생님 아이들 구분할 것 없이 다들 뛰어다니느라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덥고 찝찝할 텐데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바람개비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5일 내내 아이들을 보는 오전 9시부터 5시까지의 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봉사를 하러 간 것인데 해맑은 아이들의 모습에 제가 오히려 치유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너무 시간이 잘 가서 다시 돌아오기가 무척 아쉬웠습니다. 저희가 돌아오는 날 아이들이 편지를 써서 주면서 꼭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름 방학에 교육 봉사를 다녀온 것이 여름방학에 한 일 중에 제일 기억에 남고 즐거웠습니다. 다음 겨울방학에도 교육 봉사를 다시 참여해야겠다고 다짐할 만큼 너무나도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강경지역아동센터 박*선

걱정반 기대반인 마음으로 교육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이제까지 제대로 된 봉사활동 한 번 안 해본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5일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아이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혹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걱정거리를 안고 센터로 향했다. 처음 센터에 간 건데도 아이들은 스스럼없이 나를 대해 주었다. 어떻게 다가가야 할까 고민했는데 먼저 다가와 주어서 정말 고마웠다. 4박 5일간의 오후일정을 팀원들과 모두 기획해야 하기에 부담감도 있었고, 그 어떤 활동보다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

오전일정은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는 것이었는데, 오자마자 문제집을 펴고 하루에 정해진 양을 해내는 아이들이 기특했다. 오후에는 우리들이 기획해간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주고 좋아해줘서 고마웠다. 특히 물총놀이 한 게 기억에 남는다. 낮가린다고 생각하던 아이들도 장난도 치고, 쫓아오면서 물총도 쏘면서 더 쉽게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 친해지는데 헤어져야 하기에 너무 슬펐다. 한 아이는 또 왔으면 좋겠다고 하고, 어떤 아이는 안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다른 아이는 집에 가지 말라고 했다. 이 아이들도 곧 헤어질 걸 알아서 마음이 아팠다.

돌아오는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준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서 더 많은 관심을 주고, 이야기를 할 걸 후회했다. 다음 방학 때에 혹시 이화봉사단으로 참여를 하지 못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찾아가서 봉사활동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활동이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즐겁고 행복했다. 그리고 봉사활동이란 말이 무색하게 센터 선생님께서 삼시세끼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했다.

강경지역아동센터 박*선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봉사는 경험이 있었지만, 초등학생과 유치부 대상의 교육봉사는 처음이었다. 사실 처음에 이화봉사단 교육봉사를 신청 할 때에는 중학생 위주의 프로그램을 찾아보았는데, 친구 한명이 강력하게 초등부와 유치부 대상 프로그램에 참여하자고 주장해서 강경중앙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하게 되었다.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시작한 교육봉사였다. 4박 5일 동안 진행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하고, 미리 시뮬레이션 하면서 열심히 준비해 갔다. 다른 팀은 5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반해, 우리 팀은 한명이 나가는 바람에 4명에서 일을 나눠해야 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 4명에서 진행하기 힘든 부분이 느껴졌지만 다행히도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 덕분에 프로그램을 무사히 진행한 것 같다.

첫 날 부끄러워하며 말수가 적던 아이들도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달려와서 안기고 먼저 말을 걸어주었다. 사실 이름을 잘 외우지를 못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4박 5일 동안 아이들과 지내다보니 다행히도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워서 불러주고 올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다면 강경중앙지역아동센터로 다시 교육봉사를 가고 싶다. 아이들과의 소중한 인연을 이어나가고 싶다. 5일 동안의 봉사가 나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소중한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다.